

指示體 不可透視性과 Putnam의 實在論 論駁¹⁾

李 秉 昱

H. Field를 비롯한 최근의 물리주의자들(Physicalists)은 Tarski 식의 진리 정의(Tarski style definition of truth)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 그 요점은 진리술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Tarski가 지시(reference) 내지 충족(satisfaction)개념에 대해서는 그 사례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이것이 임시 방편일 뿐 “참된 환원”(real reduction)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cf., Field, 1972). Putnam은 물리주의자들의 이런 입장에 대한 반발로써 다시금 지시론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그가 내리는 결론은 단어의 지시체가 미확정적(underdetermined)이고 나아가서 불확정적(indeterminate)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번역 즉 상대적 해석(relative interpretation)의 문제를 다루면서 Quine이 한 주장 가운데 일부가 바로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과거와 달리 Putnam은 Quine의 이런 입장을 옹호하고, 또 그 논거를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Putnam에게서 새로운 것은 이 점이 아니라, 그가 지시체 불가투시성 원리(principle of inscrutability of reference)를 바탕으로 물리주의자들을 논박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포괄적인 입장인 경험적 실재론(a posteriori realism)을 물리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 원리를 주장하는 Quine과 Putnam의 논증을 살핀 다음, Putnam의 反實在論(anti-realism)을 이 원리가 실재론에 대해서 제기하게 되는 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부각시킬 것이다.

I.

Quine이 제시하는 바 번역 불확정의 원리(principle of indeterminacy of translation)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철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시비를 가리려고 노력해왔다. 또 Quine을 비판하는 무수한 논문들이

1) 이 논문은 1984년 2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된 한국 철학회 분석 철학 분과 제 4차 합숙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이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로운 비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이 원리가 완전히 논박되고 Quine 이 극복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뜻한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논쟁은 Quine 의 입장과 문제의 소재를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러내주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드러난 바 Quine 의 기본 입장은 자연주의 (naturalism) 요, 번역 불확정성 원리의 성격은 경험적 가설 (empirical hypothesis) 이라는 것이다.

이 원리는 일단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번역 불확정의 원리 : 한 언어에 속하는 단어를 다른 언어어로 번역하는 데 사용되는 편람들 (manuals for translations) 은 상이한 방식으로, 즉 그것들 각각이 언어 성향들 (linguistic dispositions) 의 총체와는 양립 가능 (compatible) 하지만 그것들 서로 간에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성립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수가 있다 (Quine 1960, 27).

그런데 이 원리의 내용과 근거를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앞으로의 논의와 관련되는 몇가지 점만을 지적해두고, 우리의 본래 관심사인 다음 문제—지시체 불가투시성의 원리—로 넘어가자. 아래 주석 중에서 첫째와 둘째 주석은 불가투시성 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첫째, 이 원리는 여러 번역 편람들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식의 인식론적 주장이 아니다. 이 원리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개 이상의 편람이 있다면, 그 이상의 결정은 “사실의 문제” (matters of fact) 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둘째, Quine 이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사실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 사실 (facts) 과 자의적 약속 (convention) 사이의 구분에 대한 Quine 의 비판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Quine 은 우리의 과학 이론이 경험적 증거에 대해서 미확정적 (underdetermination of theory from all possible evidence) 이라고 하면서도, 현재의 과학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의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자의적인 것과 객관적인 사실의 구분이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과학 이론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듯이 “전적으로 실재론적인 태도” (my fully realistic attitude)²⁾ 를 취하면서도, 상충하는 번역 편람들 사이의 선택은 자의적인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과학 이론의 전체계, 즉 “자연에 관한 모든 진리” (the whole truth about nature)²⁾ 를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문제의 결정은 자의적인 것이라는 것

2) Quine, W.V.O., “Reply to Chomsky”, in *Words and Objections*, ed. by D. Davidson and J. Hintikka (D.Reidel, 1969), p. 303.

이다. 번역 불확정성은 결국 Quine의 전반적인 자연주의적 태도 아래에서 제시되는 것이다: 자연 과학적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무리 증거의 토대를 떠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보없이 받아들이는 반면, 여기서 결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해야 한다.

세째, 독립된 언어 행위의 단위를 이루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라는 자각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Quine과 같이 “언어에 대한 자연주의적 관점”(naturalistic view of language)³⁾, “의미에 관한 행동주의적 견해”(behavioral view of meaning)³⁾에 설 경우에는 이 점의 의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번역 작업의 결과(output)로 취급되는 것은 단어들 상호간의 번역이 아니라 문장 대 문장의 번역이다.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은 이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양립 불가능성이란 문장 차원에서의 양립 불가능성을 말한다.

네째, 또 이것은 “아무리 약한 의미에서의 동등 관계(equivalence)”⁴⁾조차도 유지하지 못함을 뜻한다. 번역 불확정성의 예는 실질적 동등 관계(material equivalence)⁵⁾ 즉 진리치의 일치조차도 만족시키지 않는 복수의 번역 편람들이라야 된다. 여기서 암시되듯이 번역 불확정의 원리는 매우 강력하고 또 철저한 원리이다.

주석 3 및 4에서 드러나듯이 Quine이 *Word and Object*의 제2장에서 들고 있는 바가 상의 정글 언어의 한 문장 “Gavagai”에 대한 가능한 번역의 예들은 번역 불확정성의 사례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기껏해야 그가 말하는 지시체 불가투시성 원리(principle of inscrutability of reference)를 보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뿐이다.

指示體 不可透視性 原理(principle of inscrutability of reference): 문장의 구성 요소인 단어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지시체를 할당하면서도 언어 성향들의 총체와는 양립 가능한 복수의 번역 편람들(바꾸어 말해서 해석 체계들, interpretation schemes)이 있을 수 있다.

Quine이 相對主義 指示論(relativist theory of reference) 및 存在論의 相對性(ontological relativity)을 주장하게 되는 진짜 근거는 번역 불확정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지시체 불가투시성의 원리이다.⁶⁾ 이제 우리는 상대주의의 존재론을 근거로 실재론적 세계관

3) Quine, W.V.O., “Ontological relativity”, in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by W.V.O. Quine (Cambridge U.P., 1969), p. 28.

4) Quine, W.V.O., *Word and Object*, MIT Press, 1960, p. 27.

5) Ibid., p. 73f.

Quine, W.V.O., “On the reasons for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Journal of Philosophy* 67, 1970.

6) Cf. Ibid., p. 183.

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Putnam의 입론을 살펴볼 것인데, 이 입장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려면 우선 번역 불확정성 원리와 불가투시성 원리를 상호 구별한 다음 그에 힘입어 전자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후자가 독립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전자에 대한 비판은 이루 셀 수 없으리만큼 많으며,⁷⁾ 또 Quine 스스로도 이 원리가 입증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⁸⁾ 한편 그는 불가투시성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논쟁의 소지가 없다” (little room for dispute)⁹⁾ 고 보고 있는데, 이 글에서도 후자의 원리는 전자에 대해서 제기되어 온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옹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옹호는 원래의 불가투시성 원리를 옹호하는 중간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수정된 원리 (불가투시성 원리 I)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불가투시성 원리 I은 원래의 방식대로 표현으로 표현된 불가투시성 원리를 함축하는 것으로서 이 원리가 참임이 밝혀지면 번역 불확정의 원리가 거짓인 경우에도 원래의 불가투시성 원리가 참일 수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¹⁰⁾

불가투시성 원리 I : 문장들에 대한 진리치 또는 진리 조건은 보존하면서도 그 구성 요소인 단어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것을 지시체로 할당하는 복수의 번역 편람들 (바꾸어 말해서 해석 체계들)이 있을 수 있다.

II.

Quine은 일단 가상의 예를 들으로써 불가투시성을 설명한다. 토끼가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말할 경우에만 참이 되는 관찰 문장 (observation sentence) “Gavagai”의 진리 조건이 이를 구성하는 단어 “gavagai”의 지시체를 결정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Gavagai”에 대한 번역으로 제시되는 다음 세 문장의 진리 조건은 동일하지만, 그 각각의 경우에 “gavagai”의 지시체는 서로 다른 것 (토끼 ; 토끼-단면¹¹⁾ ; 및 토끼임)이 되기 때문이다.

7) 그 중에서도 특히 M.A.E. Dummett의 “The significance of Quine’s indeterminacy thesis,” rp. in *Truth and Other Enigmas* by M.A.E Dummett (Harvard U.P., 1978)의 비판이 Quine과 정면 대결한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8) W.V.O. Quine, *Word and Object*, MIT Press, 1960, p.27.

9) W.V.O. Quine, “On the reasons for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Journal of philosophy* 67, 1970, p. 182.

10) 앞으로는 편의상 불가투시성 원리 I을 그냥 “불가투시성 원리”라고 부르면서 그 근거를 제시한 다음, 불가투시성 원리 I이 원래의 불가투시성 원리를 함축한다고 보는 이유를 따로이 다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가투시성 원리 I의 논증은 원래의 불가투시성 원리에 대한 옹호의 한 단계로서 거론이 되는 것이다.

11) 4차원에 속하는 대상인 토끼를 시간축을 따라 자른 단면들 각각을 한 개의 대상으로 본 것.

- (1) 저기 토끼가 있다.
(There is a rabbit over there.)
- (2) 저기 토끼 - 단면이 있다.
(There is a rabbit - slice over there.)
- (3) 저기 토끼임이 예화되어 있다.
(There is a rabbithood being exemplified over there.)

이 예는 가상의 언어에 의존하는 까닭에, 불가투시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데 그칠 뿐, 불가투시성 원리가 참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하다. 불가투시성 원리를 주장하는 Quine의 근거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거는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고려에 입각한 것으로서 간접 지시 (derided ostension)의 문제이다. 예컨대 표현 (expression)과 그 Gödel 수 (Gödel number)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어떤 표현에 관한 문장들의 주어 및 술어를 체계적으로 재해석해서 그 표현들에 상당하는 Gödel 수에 관한 문장들로 바꾸어 놓는다 하더라도 문장 전체의 진리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Quine은 물체 (body)에 관한 문장을 시-공 (space-time)위의 점들에 관한 문장으로, 또 이것을 다시 수의 집합에 관한 문장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²⁾ 전체적으로 이런 재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를 Quine은 논리학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양화 체계의 변수들이 어떤 확정적인 번역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술어들의 해석이 사전처럼 명라되어 있는 우리의 정비된 표준 기호 체계를 생각해 보자. 술어들에 대한 무수한 재해석과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번역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로 표현되는 참인 문장은 여전히 참이다. 사실 술어들을 적절히 재 해석하기만 하면, 동일한 크기의 어떤 번역이라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참인 문장은 참으로, 거짓인 문장은 거짓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주어진 번역이 무한 번역이라면, 무한 번역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Skolem-Löwenheim 정리다. 이런 모든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참인 문장은 여전히 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아마 단어들의 지시체라기보다는 문장들의 진리치 및 진리 조건이라야 될 것이다.¹³⁾

12) e.g., W.V.O. Quine, "Things and their place in theories," in *Theories and Things*, by W.V.O. Quine (Belknap Press, 1981), p. 16ff

13) W.V.O. Quine, "Facts of the matter," rp. in *Essays on the Philosophy of W.V. Quine*, ed. by R.W. Shahan and C. Swayer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79).

둘째 근거는 우리의 과학 이론 자체에 상이한 존재론적 함축(ontological commitments)을 가지면서도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론들 즉 동등한 기술 체계들(equivalent descriptions)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Putnam은 *Reason, Truth and History*에서 이런 근거 하에 주장된 불가투시성 원리에 대한 새로운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예는 아래 문장(4)의 진리 조건은 보존하면서도 “고양이”는 버찌를 또 “매트”는 나무를 지시하게 만드는 어떤 해석 즉 비표준적 해석이 있음을 보여준다.

- (4)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
(A cat is on a mat)

이 예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Quine의 예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그 첫째는 서로 다른 해석에서 제시되는 대상들이 서로 무관한 대상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현실 세계에서의 진리치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 세계에서의 진리치마저도 동시에 보존하는 비표준적 해석 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인데, 이로써 불가투시성 원리가 현실 세계의 우연한 특징을 기화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예 자체가 불가투시성 원리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한 편 위에서 본 Quine의 근거가 Quine 자신의 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Putnam이 그것들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논의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요컨대 불가투시성 원리의 근거는 (1) 동등한 기술 체계들이 있다는 사실과 (2) 논리학에서 모형 이론(model - theory)의 결과들이다. 그런데 대상의 갯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재해석을 하더라도 대상의 갯수는 변경시킬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대상의 갯수가 무한한 경우에는 필요한 대상들의 갯수마저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Löwenheim-Skolem정리가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1)의 근거에서도 서로 다른 동등 기술 체계들이 함축하는 대상들의 갯수가 일치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 점은 불가투시성 원리가 실재론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가 Quine이나 Putnam이 내놓는 예들에서 얼핏받는 인상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암시한다.

Ⅲ.

문장의 진리 조건은 보존하면서도 단어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것을 지시체로 할당하는 복수의 번역/해석 체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했다. 그런데 이 점은 단어의 지시체 결정이 미확정적(underdetermination of reference)임을 보여줄 뿐, 이들 가운데 한 개가 진짜 지시체라고 볼 수가 없다(지시체 불가투시성)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장할 뒷받침하지는 못한다(물론 전자가 후자를 주장하기 위한 상당히 유력한 근거이기는 하

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체가 불확정적 즉 Quine의 용어로 불가투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Quine의 自然主義(naturalism)에서 찾을 수 있다.

Quine이 말하는 자연주의는 일단 자연 과학에 선행하고 또 자연 과학을 정초지우는 것으로서의 第一哲學의 이념에 대한 추구를 포기¹⁴⁾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지시론의 문제, 의미론의 문제, 더 나아가서 언어적인 문제도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언어는 하나의 사회 현상(social art)”이다.¹⁵⁾

이처럼 언어를 사회 현상으로 보고, “의미란 일차적으로 행위의 속성”¹⁶⁾이라고 봄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번역/해석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¹⁷⁾ 그런데 언어 현상은 번역의 결과인 문장의 진리 조건만 적당하면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문장의 진리 조건이 단어의 지시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지시체를 결정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언어 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문장의 진리 조건이나 결정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초경험적(a priori)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지만(번역 불확정성), 어쨌든 이제 지시체 불가투시성 원리는 보다 확고한 기반 위에 서게 된 것이다. “박물관의 우상”(myth of the museum)은 마침내 근절되어야 함이 드러난 것이다.

Quine이 번역 불확정성 원리 및 지시체 불가투시성 원리를 다루게 되는 기본 입장이 자연주의의 관점일 뿐더러, 거기에 의존함으로써야 비로소 지시체 미확정성을 근거로 지시체 불가투시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서는 자연주의를 일단 소극적으로 특징 지웠다: 자연주의는 제일 철학의 이념, 초과학적 관점의 배제를 뜻한다. 그래서 사회 현상에는 완전히 발현되지 않는 그 무엇인 의미(meaning)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초경험적 직관(a priori intuition)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선 배제되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견해에서는 어떤 형태로건—심리적 대상으로서건, 추상적 대상으로건 아니면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서건—언어의 의미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단어들은 그것들과 관련지워짐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Quine은 이런 견해를 “박물관의 우상”이라 부르는데, 이는 곧 모사주의 언어 이론(copy theory of language)로서 의미론에서의

14) W.V.O. Quine, “Five milestones of empiricism,” *rp.* in *Theories and Things*, by W.V.O. Quine (Belknap Press, 1981), p. 67.

15) W.V.O. Quine, *Word and Object* (MIT Press, 1960), p. ix.

16) J. Dewey, *Experience and Nature* (Open Court, 1925), W.V.O. Quine, “Ontological relativity,” in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by W.V.O. Quine (Cambridge U.P., 1969), p. 27에서 재인용.

17) Cf. *Ibid.*, p. 28.

심리주의 (mentalist semantics) 는 그 일종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입장에서는 과학적 방법 이외에 어떤 초경험적 직관을 상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시체 미확정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Quine 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도 초경험적 직관의 문제를 불가투시성 원리를 주장하게 되는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급할 뿐, 이 원리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고려하지는 않을 작정이다.¹⁸⁾

그런데 Quine 에게서 자연주의는 초경험적 인식 능력을 배제하는 소극적 기능 이외에 적극적인 내용 또한 가지고 있다. Quine 은 현재로서 최첨단 과학인 물리학이 여타 학문에 비해 어떤 의미에서 우선성을 가지고 있다는 극히 완화된 형태의 물리주의 (physicalism) 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미 앞에서 암시했듯이 의미론에서는 세련된 行動主義 (behaviorism) 을 주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불가투시성과 불확정성에 대한 Quine 의 설명 및 논증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Quine 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전제를 문제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투시성을 실재론 논박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면, Quine 이 자연주의에서 끌어낸 적극적인 결론들 (물리주의와 행동주의) 는 불가투시성 원리의 논거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도 Putnam 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¹⁹⁾ 문장의 자극 의미 (stimulus meaning) 이 아니라 진리 조건을 가지고 불가투시성 원리를 설명하고 또 옹호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

우리의 언어에 대한 해석 체계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지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견해, 즉 소위 “전통적 해석 이론” (Received View of interpretation) 에 따르면, 實驗條件 (operational constraints) 과 理論條件 (theoretical constraints) 에 의해 옳은 해석 체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실험 조건은 우리의 언어/이론의 문장들과 관찰 가능한 상황 (혹은 관찰 문장) 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한편, 이론 조건은 우리의 이론 체계, 언어 체계 전체가 만족시켜야 되는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특성들—예컨대 단순성 (simplicity), 친숙성 (familiarity), 경제성 (economy) 등등—을 지적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두 종류의 조건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문장들의 진리치일 뿐,²⁰⁾ 단어들의 지시체는 이 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진리치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단어의 지시체가 미확정적이라면, 전통적 해석 이론에서는 불가투시성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18) Ibid., p.28.

19) 그리고 그는 Field 식의 물리주의 즉 환원주의로서의 물리주의를 불가투시성을 근거로 물리치고 있다.

20) 게다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문장들의 진리치를 일원적으로 (uniquely) 결정할 수 있는지도조차도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 바로 경험적 증거에 대한 理論未確定의原理 (principle of underdetermination of theory from all possible evidences) 인데, 이는 Quine 이 번역 불확정의 원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Putnam의 불가투시성 원리 옹호는 전통적 해석 이론, 정통 과학관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항상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제 물리주의나 행동주의와는 상관없이 불가투시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가투시성이 이렇듯 보다 폭넓은 지반 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 이 지반 자체에 대해 잠시 언급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통 과학관은 그 유래가 檢證主義 (verificationism) 내지 實驗主義 (operationism) 라는 점에서 암시되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검증주의에 입각한 입장이며, 21) 검증주의는 다시금 일종의 “화용론적 의미론” (pragmatic theory of meaning) 22) 에 해당된다. Putnam이 화용론적 언어 이해론 (pragmatic theory of language understanding) 을 받아들이고서, 그렇게 되면 지시체가 일의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게 된다고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에 관한 Quine의 자연주의 관점 또한 일종의 화용론적 언어 이해론—이를테면 행동주의적 화용론?—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불가투시성 원리(또 불확정성 원리)와 Putnam 식의 실재론 논박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眞理條件的 言語 理解論 (truth-conditional theory of language understanding)에서 語用論的 言語 理解論 에로의 변천이 깔려 있다고 합적하다.

이제 Putnam이 보여주는 바 실재론과 화용론적 언어 이해론 사이의 갈등 관계에 착안함으로써, Putnam 논의의 귀결은 실재론이 아니라 화용론적 언어 이해론 및 정통 과학관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서 Putnam을 비판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23) 이런 까닭에 Putnam이 화용론적 언어 이해론을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Putnam이 단어의 지시 관계 및 문장의 진리 조건을 앞으로 언어가 이해된다고 주장하는 진리 조건적 언어 이해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보게 된 것은 논리적 순서로 보면 진리 조건적 언어 이해론에 대한 M. Dummett의 비판을 받아들임으로써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은 Putnam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야만 만족할 만한 것이 된다. 여기서는 Put-

21) Cf., M.Devitt, “Realism and the renegade Putnam: A critical study of *Meaning and the Moral Sciences*,” *Nous* 17 (1983), p.403.

22) 김 여수 교수는 후기 Wittgenstein의 의미론- 흔히 “용도 이론” (use theory)이라 불리우는 것-에 대해 이 용어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여수, “世界와 言語,” *哲學 概論*, 김 여수 et.al. 著 (한국 방송 통신 대학, 1982), p.159. 여기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용도 이론”이라는 용어가 후기 Wittgenstein의 다른 특성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의 의미론의 한 특성을 보다 폭넓은 시야에서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23) 사실 이론 용어 (theoretical terms) 및 이론적 대상 (theoretical entities)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Putnam과 거의 마찬가지로 논증을 제시한 바 있는 J.O.Winnie는 오히려 전통적 해석 이론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암시하고 있다. J.O.Winnie, “The implicit definition of theoretical terms,” *British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18(1967), p.228f. 또 Winnie의 견해에 관한 D.Pearce와 V.Rantala, “Realism and formal semantics,” *Synthese* 52(1982), p.46의 지적을 참고할 것.

nam의 실재론 논박에서 Dummett의 논박이 전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한다.²⁴⁾

IV.

여태까지 지시체 미확정의 원리 및 지시체 불가투시성 원리의 내용과 근거를 밝혔다. 이 원리들은 앞으로 보게 될 Putnam의 실재론 논박(arguments against realism)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에, 이 원리들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은 곧 이 실재론 논박에 대한 불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비판들을 타진하고, 또 이 글의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그것들에 대한 응수의 방향도 제시해 보려고 한 것이다. 이제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 Putnam이 어떻게 실재론을 물리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Putnam의 입론의 요지는 만약에 우리가 실재론의 입장에 선다면, 실재하는 대상들에 대한 지시(reference)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가 없으며, 이 사실-에겐대 “고양이”는 버찌가 아니라 고양이를 지시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어떤 형태의 反實在論(anti-realism)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Quine이 처음에 불가투시성의 사례로 제시한 것은 “Gavagai”의 예, 즉 原初的 翻譯(radical interpretation)의 경우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고찰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불가투시성이 반드시 해석자가 익히 사용하고 있지 않은 언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언어는 대칭성을 지닌 것이어서, 만약 저들의 언어가 불가투시적이라면 나의 언어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두 사람의 말 즉 개인어(idiolect) 상호간의 번역도 불가투시적일 뿐더러, 불가투시성의 성격이 과학 이론 내지 과학적 법칙들의 총체(즉 그에 속하는 모든 문장들의 진리 조건)과 단어의 지시체들 사이의 관계임을 분명히 밝힌 이상 화자 자신의 말이 어떤 것을 지시체로 갖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에 별 무리가 없다. 이제 나의 단어 “고양이”가 고양이를 지시하는지 버찌를 지시하는지를 가려낼 도리가 없게 된다. 이런 지적은 “고양이”가 고양이를 지시한다는 眞한 사실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를 캐묻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의미론에 국한된 것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언어의 사회적 성격을 지적한 Quine이 여기에 와서는 개개인 특유의 언어(idiolect)를 사회 언어 현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비난²⁵⁾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24) 이 비판은 곧장 Dummett의 실재론 논박을 이루고 있다. 拙稿, “실재론과 진리 개념: Putnam과 Dummett,” 철학 논구 12집(1984)는 실재론 논박이라는 각도에서 Dummett의 견해를 다루고 있다.

25) M. Dummett, “The social character of meaning,” rp. in *Truth and Other Enigmas*, by M. Dummett (Harvard U.P., 1978), p. 425.

다음에 Quine은 곧 언어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동 기준 (behavioral criteria)을 가짐으로써 “의미”를 얻는다고 봄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한다. 지시체에 관한 언급은 이런 기준을 갖춘 언어 (와 그 언어에로의 번역 편람)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 우리가 부각시키려고 하는 Quine은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언어를 사회 현상으로 보는 견해 즉 화용론자들의 언어 이해론에서는 실재론적 세계관 (Realist picture of the world)이 수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재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상들은 우리의 인식 작용과 상관없이 세계의 구성물을 이루고 있다는 실재론의 입장에 선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된 규범을 배움으로써 습득되는 언어에 속하는 단어들이 이런 대상들과 어떤 일 내 일 대응 관계 즉 지시 관계 (reference relation)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시체 미확정의 원리는 만약에 어떤 한 개의 대응 관계가 있다면,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지시 관계의 후보가 되는 다른 대응 관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들 가운데 어느 곳이 진짜 지시 관계인가? 불가투시성 원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들 사이의 선택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Putnam은 실재론자들이 초경험적 직관에 호소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V.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반실재론의 입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Quine의 해결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Quine의 해결책인 相對主義 存在論 (relativist theory of ontology)이 바로 Putnam이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반실재론의 입장— 內在主義 觀點 (Internalist Perspective)— 바로 그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기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라 주장하려고 한다.

Quine이 위의 문제를 제기하고서 내리는 결론은 지시 관계에 대한 물음이 그 준거틀 (frame of reference)이 되는 “어떤 배경 언어 (background language)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으로서 물을 때에만 의미있는 것”이 된다는 상대주의 지시론 (relativist theory of reference)이다.²⁶⁾ 또 Quine은 이론이 존재론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무엇이 있는가?” (What is there?)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1) 경험적 증거의 토대 위에서 어떤 이론이 옳은지를 밝히고,

(2) 이 이론이 어떤 존재론적 함축을 가지고 있는지, 즉 이 이론을 옳은 것이 되도록 해석하려면, 그 술어들이 어떤 것을 지시해야 되는지를 밝힘으로써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배경 언어에 대해 상대적이라는 입장은 존재론의 물음 자체

26) W.V.O. Quine, *op. cit.*, p. 48.

도 배경 언어에 대해 상대적이라는 결론을 낳는다. “존재론의 상대성”(ontological relativity)을 주장하는 Quine의 이런 입장은 곧 Putnam이 말하는 내재주의의 관점인 것으로 해석된다.

內在主義 觀點 (Internalist Perspective) : “세계가 어떤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묻는 것은 어떤 이론 체계 내지 기술 체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²⁷⁾

이 관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 실재론의 기본 입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종의 반실재론—매우 철저한 형태의 반실재론—이나.

實在論의 基本 立場 : “세계는 정신 독립적 대상들의 확정된 전체로 이루어져 있다.”²⁸⁾

종래의 여러가지 실재론들은 이런 기본 입장을 토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정신 독립적 대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각기 다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대상들에 관한 실재론(realism about some give entities)의 형태를 띤다. 예컨대 최근의 물리주의자들은 환원 프로그램으로서의 물리주의와 더불어 물리적인 것들(physical entities)만이 기본적인 정신 독립적 대상이라는—元論的 實在論(monistic realism)을 주장하고 있는데, 설명력을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물리적 대상 및 물리학적 법칙들에도 환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를 그런 대상에 관한 배타적 실재론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실재론의 기본입장은 일원론적이건 다원론적이건, 환원적이건 비환원적이건간에 모든 형태의 실재론이 가지는 공통 분모를 추출해내려는 시도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이 수정되어야함을 보여주는 Quine—Putnam의 소론은 모든 형태의 실재론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게 된다.

V.

Quine의 주장하는 바 존재론의 상대성과 Putnam이 말하는 내재주의의 관점은 어떻게 보면 세계 그 자체는 일정한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대한 우리의 언급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회의주의를 동반한 실재론으로 곡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에 반해 배

27) “What objects does the World consists of is a question that it only makes sense to ask within a theory or descriptions.” H. Putnam,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P., 1981), p.49. 원문 강조.

28) Ibid. “The world consists of some fixed totality of mind-independent objects.”

경 언어의 선택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이론 구성 및 인식 행위의 결과라는 것은 Quine 철학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N. Goodman은 순전히 형식적인 귀납 논리 (purely formal inductive logic)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배경 언어의 선택 (좀 더 정확히 말해서 projectible sentences와 unprojectible sentences 사이의 구분) 자체가 무엇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관한 우리의 견해 (our conception of rationality)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⁹⁾ 내재주의의 관점은 결국 합리성에 관한 우리의 견해에 입각해서 우리가 구성해낸 세계에 관해서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대상들 - Kant의 용어를 빌리자면 "경험적 대상들" (empirische Objekte) -에 관한 지시 관계를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 대상들 또한 합리성에 관한 우리의 견해의 산물, 우리의 인식 행위의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내재주의의 관점에서든 기호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누구에 의해 사용되는지와는 상관없이 대상들과 어떤 본질적인 (intrinsic) 대응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언어사용 단체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호는 그 사용자들의 개념체제 안에서 특정 대상과의 대응관계를 가질 수 있다. "대상"이란 개념 체제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저러한 기술 체제들을 도입함으로써 세계를 대상으로 가르는 것은 우리들이다. 기호 뿐만 아니라 대상 또한 기술 체제에 대해 내재적인 것이기에, 무엇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³⁰⁾

VII.

우리는 화용론적 언어 이해론의 귀결로서 나타나는 지시체 불가투시성이 경험적 실재론 (a posteriori realism) 일반에 대해 문제를 던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반실재론의 입장에 섬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Putnam의 입론을 살펴보았다. 또 Putnam의 내재주의의 관점에서 지시론의 문제가 해소되는 까닭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관점이 실재론일 수 없다는 점이 좀더 해명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이제 앞으로 두 개 절에 걸쳐서 Putnam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누차 지적했듯이 이 글에서는 지시체 불가투시성을 번역 불확정성과 분리해서 또 Quine의 물리주의 및 행동주의를 끌어들이지 않고 옹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Quine에게 제기되었던 비판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이 글의 입장과 무관한 것이 되었다. 여기서 살

29) cf. N. Goodman, *Fact, Fiction and Forecast* (Bobbs-Merrill, 1955).

30) Putnam, op. cit., p. 52. 원문 강조.

펴보려고 하는 것은 물리주의자들의 비판이다. 먼저 소위 "지시 인과설"(causal theory of reference)을 토대로 불가투시성 원리 자체를 논박하려는 시도를 살펴본 다음, 다음 절에서는 불가투시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재론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Field의 입론을 다룰 것이다.

H. Field, M. Friedman, M. Devitt 등의 물리주의자들은 비행동적, 물리적 사실들(non-behavioral, physical facts)이 있어서 지시 관계의 후보가 되는 여러 대응 관계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지시 관계인지를 결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시 인과설이 바로 이런 사실들에 관한 이론인데, 여기에 따르면 과학 이론에 나타나는 설명력이 있는 여타의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지시 개념도 경험적으로 즉 물리주의적으로 환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시 관계의 본성이 좀더 밝혀지면, 불가투시성의 여지가 남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³¹⁾

이에 대한 Putnam의 반론은 지시 관계가 준하고 있는 법칙들³²⁾을 아무리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이 법칙을 표현하는 문장들의 구성 요소인 단어들(예컨대 "지시", "원인" 등)의 지시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연 과학적 탐구에 의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지시 관계에 관한 사실들 즉 아래와 같은 것이 참이라는 사실 뿐이다.

(5) 단어 x 가 대상 y 에 대해 R 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x 는 y 를 지시한다.

(x refers to y if and only if x bears R to y .)

그런데 " x 가 y 에 대해 R 의 관계를 가진다"는 문장(혹은 그 일례로 " y 가 x 에 대해 적절한 종류의 원인이 된다"는 문장)의 진리치는 이를 구성하는 단어들 - 여기서는 " R "과 " y "(혹은 "원인"과 " y ")-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결정해줄 수가 없다. " R "(혹은 "원인")이라는 단어와 " y "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상보적 기능을 함으로써 문장(5)의 진리치마저도 보존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지시 관계에 관한 사실들이 아무리 많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지시 관계의 후보가 되는 여러 대응 관계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지시 관계인지는 결정해주지 못한다.

31) M. Devitt, "Realism and the renegade Putnam: A critical study of *Meaning and the Moral Sciences*," *Nous* 17 (1983), p.298.

H. Field, "Quine and the correspondence theory," *Philosophical Review* 83(1974), p.202.

M. Friedman, "Physicalism and indeterminacy of reference," *Nous* 9(1975), p.365.

32) cf. M. Friedman, "Truth and confirmation," *Journal of Philosophy* 76(1979), p.374f.

VIII.

H. Field는 “부분적 지시 관계” (partial reference)라는 개념을 도입한다.³³⁾ 그는 지시체가 불가투시적이라는 Quine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시 관계가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단어들과 정신 독립적 대상들 사이의 확고한 관계임을 이 개념에 의거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³⁴⁾ 이런 주장이 만약에 타당한 것이라면, 그는 실재론을 포기하지 않고 불가투시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Putnam에 대한 비판이 된다. Field의 주장은 지시 관계가 미확정적 또는 불확정적인 단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부분적으로는 어떤 것을 지시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다른 것을 지시하는 단어들이 있을 뿐인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시에 양자를 다 지시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해석 체계에서는 전자를 또 다른 해석 체계에서는 후자를 지시한다. 그래서 의미론의 기본 개념은 “지시 관계” 개념이 아니라 “부분적 지시 관계”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지시 관계가 해석 체계에 대해 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기본적인 것인 부분적 지시 관계는 단어들과 정신 독립적 대상들 사이의 확고한 관계가 된다. Quine이 들고 있는 “Gavagi”의 예도 이런 개념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여러개의 대상들이 지시체의 후보로 등장해서 어느 것이 진짜 지시체인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 마다 그것들을 모두 부분적 지시체로 처리해 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우선 Putnam의 예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의 설득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리라는 점을 지적해두자. Putnam의 예는 원하기만 하면 어떤 것이라도 일정한 단어의 지시체가 되도록 하는 해석 체계를 내놓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분적 지시 관계를 기초로 지시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Field 주장의 설득력은 “gavagai”의 지시체가 되는 것들이 서로 관련된 것들이고, 또 그 숫자가 몇 개 안된다는 사실에 상당히 힘입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보다 중요한 것은 부분적 지시 관계가 정신 독립적 대상과의 확고한 관계라는 사실 또한 실재론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최상위의 meta-언어에서도 불가투시성 현상은 여전히 발생하는데, Field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6) 단어 x 가 대상 y 를 부분적으로 지시한다. (x partially refers to y .)

이 문장 (6)이 단어 x 와 정신 독립적 대상 y 사이의 어떤 확고한 관계 (부분 지시 관계)를 표현하려면, 단어 “ y ”가 다른 대상 아닌 y 를 지시해야 한다. 그런데 대상 언어의 부

33) H. Field, “Theory change and indeterminacy of reference,” *Journal of Philosophy* 70(1973).

34) H. Field, “Quine and the correspondence theory,” *Philosophical Review* 83(1974).

분적 지시 관계를 이야기하는 meta -언어 (문장 (6)이 속하는 언어)에서도 문장의 진리치가 그 속에 나오는 단어들의 지시체를 결정해주지 못한다면, 단어 "y"가 다른 어떤 대상 y를 지시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Field는 이 meta -언어에서는 불가투시성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될 터인데, 이는 Quine의 불가투시성 원리가 잘못임을 전제하는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petitio principii)에 빠지는 것일 뿐, 이 원리를 실재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Field는 이 meta -언어가 불가투시적임은 보다 상위의 meta -언어로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을 테지만, 이것은 문제를 무한정으로 소급시킬 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어쨌든 최상위의 meta -언어가 되는 어떤 언어가 있어야 되고, 이 언어에서는 불가투시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Field는 원래 과학이론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이론들이 같은 것에 관한 다른 이론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부분적 지시 관계"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³⁵⁾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Field에게서 최상위의 메타 언어는 곧 최선의 과학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으로는 언어의 지시체들이 일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Quine과 Putnam의 요점이고, 이런 지적은 최선의 과학 이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X.

이 글은 지시론에 비추어 본 실재론의 문제를 Putnam의 시각에서 정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대상에 관한 언급이 가능하려면 실재론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대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포기하는 실재론자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적 탐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사실들이고, 사실이란 대상들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세계의 구조적 특성을 이룬다. 그래서 대상에 관한 언급 (지시)은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표현하는 문장의 진리치는 여전히 거론될 수 있을 법하니,³⁶⁾ 진리치의 객관성(objectivity of truth-value)을 근거로 삼고 실재론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실재한다고 주장이 되는 것은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구조적 특성이다. 이 구조는 우리의 인식 행위와 상관없이 세계가 그 자체로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문장의 진리치가 객관적으로

35) H. Field, "Theory change and indeterminacy of reference," *Journal of Philosophy* 70(1973).

36) cf. W.V.O. Quine, "Facts of the matter," *rp.* in *Essays on the Philosophy of W.V. Quine*, ed. by R.W. Shahan and C. Swayer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79), p.165.

_____, "Things and their place in theories," in *Theories and Things*, by W.V.O. Quine (Belknap press, 1981), p.20.

결정되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런 사고 과정이 불가투시성 원리의 충격에 대한 실재론자들의 대응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7) D.Pearce와 V.Rantala는 이런 입장에 대한 적절한 명칭 - "구조 실재론" (structuralist realism) - 을 제시하고 있는데, 38) 그들이 말하는 구조 실재론이 바로 이런 입장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필자는 이런 입장을 구조 실재론의 입장이라 부르면서 여기에 대해 Putnam이 제기할 수 있음직한 반론들을 살펴본 바 있다. 39)

원래 Putnam이 지시론의 문제에 착안해서 실재론을 공박하기에 이른 것은 단어와 정신 독립적 대상 사이의 지시 관계가 진리 대응설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의 핵심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재론이 진리 대응설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진리 대응설의 구성 요소인 지시 관계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실재론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재론이 진리 대응설로 특징지워진다는 생각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이기에, 이 글에서는 이 생각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 Putnam의 실재론 논박을 살리려고 한 것이다.

한편 필자는 어쨌든 실재론이 어떤 진리 개념 - 認識 超越的 眞理 概念 (recognition-transcendent notion of truth) - 을 함축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는 논의를 편 적이 있는데, 이는 동시에 하필 對應으로서의 眞理 概念 (correspondence notion of truth) 및 그 구성 요소인 지시 관계를 근거로 삼지 않고서도 실재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인식 초월적 진리 개념은 진리 대응설을 어떤 적극적 내용으로 담은 이론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規制 原理 (correspondence theory as regulative principle)로 받아들일 경우에 곧바로 나타나는 진리 개념이기도 하다. 진리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 작용이 아니라 객관적 실재라면, 우리가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문장은 확고하게 참이거나 또는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최선의 과학 이론 (ideal theory) 조차도 거짓일 수 있다. 40)

이 두가지 고려 사항 - 구조 실재론의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재론의 특징이 대상에 대한 지시 관계가 아니라 모종의 진리 개념이라는 것 - 은 실재론이 무엇인지에 관한 M.Dummett의 견해 및 그의 실재론 논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또 Putnam에 있어서도 지시체 불가투시성에 입각한 실재론 논박이 최종적인 것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다만 이 논박을 통해 반실재론의 세계관에 이르는 길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친다. 여기서 살펴본 Putnam의 논의에 비추어 보건대 실재론에 대한 옹호와

37) 최근 Quine에게서 이런 입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실재론의 특징이 兩價原理 (principle of bivalence) 라는 Dummett의 주장에 대한 그의 호의적 반응과도 조화가 된다. cf. W.V.O. Quine, "What price bivalence," *Journal of Philosophy* 78 (1981), p.91.

38) D.Pearce and V.Rantala, "Realism and formal semantics," *Synthese* 52 (1982), p.48.

39) 拙稿, "實在論과 眞理 概念: Putnam과 Dummett," 철학 논구 12집 (1984), IV장 2절.

40) Ibid.

비판이 단어의 지시체 차원이 아니라 문장에 대한 진리 개념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래야만 한다는 비교적 새로운 견해를 부각시킬 수 있다면, 이 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어쨌든 실재론을 어떤 종류의 대상들에 관한 주장으로 이해한 전통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어서, 실재론자들에게 이런 입장에서부터 일보 후퇴를 강요할 수 있는 논박이 Putnam의 세 가지 실재론 논박들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Putnam이 제기하는 나머지 두 가지 실재론 논박은 문장에 대해 적용되는 진리 개념의 문제를 직접 다룬 것으로서, 구조 실재론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한 고찰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논박에서 Putnam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거의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논박들은 이제 보다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점만을 지적해 두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조 실재론의 입장에서도 한 걸음 더 물러선, 가능한 한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실재론(Weak Realism)이 있다면, 그것은 대상으로 분화되지도 않고 또 어떤 구조적 특성도 가지지 않는 세계, 말하자면 "미분화된 전체로서의 세계" (the world as undifferentiated whole)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 될 것이다. 이런 세계는 "양면성을 띤 경험의 근거로서의 本體界" (a noumenal ground behind the dualities of experience)⁴¹⁾ 로서 상정될 것이며, Putnam의 반실재론에서도 이런 세계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김 여수 교수는 Putnam의 입장이 "실재론인가? 아니면 관념론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글을 마무리시키고 있다.⁴²⁾

그런데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모순에 빠진다. 그래서 Putnam은 그것에 "대한 태도는 합리적 철학의 관심사이기 보다는 아마도 종교의 관심사일 것" ⁴³⁾ 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세계는 "쟁취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a world not worth fighting for ; Goodman)⁴⁴⁾ 또 "없어도 좋은 것" ⁴⁵⁾ (The world well lost; R. Rorty)라고 보는 N. Goodman의 입장에 선다. 필자 또한 이런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소위 실재론이란 적어도 구조 실재론의 차원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이라고 불 생각이고, 소극적 실재론을 묵인함으로써 구조 실재론을 옹호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拙稿에서 간략히 살핀 바 있다.⁴⁶⁾

41) Putnam, "Why there is not a ready-made world," *Synthese* 52(1982), p.163.

42) 김 여수, "진리와 실재론," 철학연구 제 18집 (1983), p.133.

43) Putnam, op. cit, p.163.

44) N. Goodman, *Ways of Worldmaking*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78), p.20.

45) R. Rorty, "The world well lost," *Journal of Philosophy* 69(1972).

46) 拙稿. op. cit, p.196f.

참 고 문 헌

- 김 여수, "世界와 言語," 哲學 概論, 김 여수 et. al. 著 (한국방송 통신대학, 1982).
- _____, "진리와 실재론," 철학 연구 제 18집 (1983).
- 이 병욱, "實在論과 眞理概念: Putnam과 Dummett,"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철학연구 12집 (1984).
- Devitt, M., "Realism and the renegade Putnam: A critical study of *Meaning and the Moral Sciences*," *Nous* 17(1983).
- Dummett, M. A. E., "The social character of meaning," rp. in *Truth and Other Enigmas*, by M. A. E. Dummett (Harvard U. P., 1978).
- _____, "The significance of Quine's indeterminacy thesis," rp. in *Truth and Other Enigmas*, by M. A. E. Dummett (Harvard U. P., 1978).
- Field, H., "Tarski's theory of truth," rp. in *Reference, Truth and Reality*, ed. by M. Platts (RKP, 1980).
- _____, "Theory change and indeterminacy of reference," *Journal of Philosophy* 70 (1973).
- _____, "Quine and the correspondence theory," *Philosophical Review* 83 (1974).
- Friedman, M., "Physicalism and indeterminacy of reference," *Nous* 9(1975).
- _____, "Truth and confirmation," *Journal of Philosophy* 76 (1979).
- Goodman, N., *Fact, Fiction and Forecast* (Bobbs-Merrill, 1955).
- _____, *Ways of Worldmaking*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78).
- Pearce, D. and V. Rantala, "Realism and formal semantics," *Synthese* 52 (1982).
- _____, "Realism and reference: Some comments on Putnam," *Synthese* 52 (1982).
- Putnam, H., "Reference and understanding," in *Meaning and the Moral Sciences*, by H. Putnam (RKP, 1978).
- _____, "Reflections on Goodman's *Ways of Worldmaking*," *Journal of Philosophy* 76 (1979).
- _____,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 P., 1981).
- _____, "Why there is not a ready-made world," *Synthese* 52 (1982)
- Quine, W. V. O., *Word and Object* (MIT Press, 1960).
- _____, "Ontological relativity," in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by W. V. O. Quine (Cambridge U. P., 1969).

- _____, "Reply to Chomsky," in *Words and Objections*, ed. by D. Davidson and J. Hintikka (D. Reidel, 1969).
- _____, "On the reasons for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Journal of Philosophy* 67 (1970).
- _____, "Five milestones of empiricism," rp. in *Theories and Things*, by W. V. O. Quine (Belknap Press, 1981).
- _____, "Facts of the matter," rp. in *Essays on the Philosophy of W. V. Quine*, ed. by R. W. Shahan and C. Swayer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79).
- _____, "What price bivalence," *Journal of Philosophy* 78 (1981).
- _____, "Things and their place in theories," in *Theories and Things*, by W. V. O. Quine (Belknap Press, 1981).
- Rorty, R., "The world well lost," *Journal of Philosophy* 69 (1972).
- Winnie, J. O., "The implicit definition of theoretical terms," *British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18 (1967).